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3일)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인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법회에서 상월결사는 전도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에서 온 불자들의 환송을 뒤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부처님을 직접 품에 안고 사르나트 녹야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상월결사, 인도서 '21세기 전도선언' 선포

**2월 11일 녹야원서 입재법회**
**회주 자승 스님 직접 낭독해**
**1167km 인도순례 여정 의미**
**'전법 포교'에 있음을 재확인**

인도=노덕현 기자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21세기 신(新)전도선언'이 울려 퍼졌다. 불교 중흥을 기치로 인도에서 순례를 이어갈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1167km 여정을 본격 시작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인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입재법회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의원 보선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장재복 주인도대사, 산카 미쉬라 유피주 보건장관, 보드가야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등 10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사르나트에는 외국인 스님 등 100여 명의 해외불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입재법회에서는 회주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인도순례 전도선언을 직접 낭독하며 이번 순례가 새로운 전법 포교의 기치를 건 과정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전도선언은 21세기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어떻게 전법·포교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자승 스님은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할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의 공덕으로 삼으면 이 또한 법을 먹고 사는 아귀와 같으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길을 나서라"며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선언했다.

스님은 이어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뤄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라고 밝혔다.

순례단은 전도선언과 함께 순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러한 순례단을 응원하는 각계 축사도 이어졌다.

장재복 주인도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큰 행사로 상월결사가 신호탄을 쏘아 올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례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국대사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산카 미쉬라 유피주 보건장관은 "한국 불교의 뿌리가 인도에 있기에 여러분은 외국인으로서 인도에 온 것이 아니라, 옛날의 집을 찾아 오신 것"이라며 "43일간 1100여 km의 순례단의 일정은 많은 부분이 유피주에서 이뤄진다. 유피주 주지사님도 스라바스티, 쿠시나가르, 럭나우 중 한 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안전 문제 등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법회서는 한국에서 이운하여 순례에 모실 목조부처님을 점안하는 의식과 한국에서 공수한 108m의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목조부처님은 40cm로 5kg으로 제작됐으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원들이 번갈아 순례단 선두에서 이운했다.

인도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하에 순례단은 안전하게 첫날 순례를 시작했다. 순례단의 앞에는 사르나트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교기와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순례단을 응원했다.

〈관련특집 2 · 3면〉

**전 문**

## 상월결사 인도순례 전도선언문

**수행자들이여,**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겨 버리는 쾌락의 길과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에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여래는 중도를 잘 알아차려 마침내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학인이여,**
중도는 여덟 가지로 되어 있다. 팔정도는 진리에 이르는 바른 길이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더없이 밝고 높은 진리의 세계에 이르노라.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할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만의 공덕으로 삼으면 이 또한 법을 먹고 사는 아귀와 같으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길을 나서라.

**수행자들이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법을 설하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

# 강진 피해 튀르키예-시리아 불교계 구호기금 보시 잇달아

**조계종, 대사관에 2억 원 전달**
**본지, 아름다운동행과 캠페인**




조계종은 2월 13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2억 원을 기부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자비손길이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튀르키예 대사관에 구호금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2월 13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위로 방문, 전국 불자들의 마음이 담긴 구호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조계종을 대표해 대사관을 찾은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먼저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지진으로 희생된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는 애도의 글을 남기고 이어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성화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복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 되찾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무랏 타메르 주한 대사는 어려운 시기,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고 마음을 전달해 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형제의 국가'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대위기는 어떤 나라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인해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조계종은 이번 구호금 전달 이후에도 전국 불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계종이 발 빠르게 구호금을 전달하자 불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현진 스님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라면서 "불자들의 정성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금 캠페인을 지속해, 추후 기금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과 쿠무다 재단 임직원도 같은 날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다.

주석 스님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종단에서 우선적으로 2억 원을 기부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한 기금 모연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대운사 사부대중도 모연에 동참키로 하고 사중에서 500만 원, 신도들이 500만 원을 모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2월 16일 아름다운 동행에 사중 스님과 신도들이 모은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가족과 친구들 잃는다면 그 충격이 크다. 이들을 위한 자비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기부에 동참해준 조계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현 스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 직후,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들에게 싶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아직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많은 분들이 조속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주관으로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 모연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되며 사태 수습과 재건복구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금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02)737-9579**

신성민 · 임은호 기자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익산삼사순례** - 미륵사지 · 심곡사 · 숭림사
삼사순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하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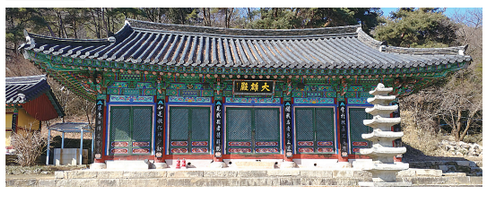
2023 익산 방문의 해

익산시가 불자님들의 삼사순례를 앞두고 초청장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고도 백제의 왕도로서 불교 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은 선인들의 신앙과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고, 힐링과 기도를 만날 수 있고, 둘러보면서 행복과 환희를 품을 수 있는 불자들의 순례지입니다. 2023년은 때마침 익산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삼사순례와 방생 행사를 반겨 맞이하고자 합니다. 미리 방문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 내 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백제역사유적 탐방 미륵사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절터에 지금은 동탑과 서탑도 복원돼 관광객들과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심곡사
깊은 골짜기라는 이름의 천년고찰, 7층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떡목을 지닌 정정렬 명창의 득음을 기념하기 위한 떡목공연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왕궁리유적
아름다운 오층석탑과 왕궁터가 남아서 백제부활을 꿈꾸던 무왕의 웅지를 보여줍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줍니다.


힐링생태여행 숭림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입니다.


데크, 연꽃, 하늘, 구름 용안생태습지공원
금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휴식과 방생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